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동기에 일허 스님(법명 영천암 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하셨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cm)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현대불교)



민수에게 혈소판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이제 5개월째로 접어든 민수가 혈소판이 부족해 헌혈이 가능한 O형을 급히 찾습니다. 현재 5차 약물치료를 진행 중인 민수는 약물과 함께 혈소판도 수혈 받고 있는데 혈소판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헌혈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에게 헌혈이 가능한 분은 민수 아버지께 연락주세요. 부산대학병원을 방문, 정밀 검사를 받은 후 헌혈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16-547-8672 hompy/buddhapia.com/homepy/helpminsu

헛발질 투성이~ 그래도 신나요

부산불교보현회, '가톨릭 평화의 집' 축구단 창단 후원회서 경비 지원...축구 지도 청년회서 맡아



"축구는 지금부터 시작" 부산불교보현회가 가톨릭 '평화의 집' 축구부 창단을 돕고 9월 3일 창단식을 가졌다.

"평화의 집 선수들! 파이팅!" 9월 3일 가톨릭 법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부산 평화의 집 운동장에 축구 경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붉은 색 유니폼을 차려 입고 평화의 집 운동장을 이리 저리 달리고 있는 선수들의 뒤통수에 적힌 '가톨릭'과 '평화의 집'이 눈에 띈다. 축구공을 따라 뛰어다니다 공은 벌써 저만치 달아나고 제대로 공 한번 차는 것도 힘들다. 헛발질을 계속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뛰고 있는 선수들. 바로 이날 창단식을 갖고 처음으로 부산 성우원 장애인 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가진 평화의 집 축구단원들이다. 평화의 집에 장애인 축구단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축구단 창단 경비를 조달한 것은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이). 종교를 떠나 장애인의 재활을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평화의 집에 장애인 축구단을 창단한 부산불교보현회는 이미 17년 전부터 천마재활원에 축구단을 만들어 지도해 왔다. 산하 단체인 부산불교보현청년회(회장 전진호)에 제대로 공 한번 차는 것도 힘들다. 헛발질을 이제 세계 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갈 정도의 실력을 갖췄고 대회 우승도 바라볼 정도의 축구단이 됐다. 이처럼 축구가 장애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재활에 큰 도움을 주자 4년 전부터는 성우원 장애인 축구단을 창단해 지도하고 있다. 축구단 창단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 5백만 원. 이 모든 경비는 3백여 명의 부산불교보현회 후원회가 마련하고 축구 지도는 부산불교보현청년회가 도맡는다. 처음 천마재활원 축구단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반인들의 무관심으로 사비를 털어 충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부산불교보현청년회 전진호 회장의 경우, 셋째 주 일요일엔 천마재활원,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엔 성우원, 첫째 주 일요일엔 평화의 집 축구단을 지도해야 할 정도로 주말을 장애인들의 축구 지도에 모두 쏟아 붓고 있다. 선수들의 생일을 챙겨 매일 한번씩 케이크와 선물을 사주고 생일 파티를 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부산불교보현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이 뿐이 아니다. 매년 5월경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한마음으로 어울리는 시간을 벌며 8년이 넘도록 이어오고 있다. 9월 3일 평화의 집 축구단 창단식 준비도 부산불교보현회 후원회가 맡았다. 새벽부터 김밥을 싸고 떡을 했다. 후원회원들이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진행된 창단식은 "축구단 선수들 모두가 부상 없이 경기에 임하고 실력이 늘길" 기원하는 고사료 대신했다. 생일을 맞은 선수들은 전진호 회장이 마련한 선물이 귀했었다. 안성이 회장은 "함께 팀을 이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장애를 극복하려는 선수들이 너무 대단하다"며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장애인 포교,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018-579-4531(안성이 회장) 글·사진/부산=천미희 기자



언제나 밝은 표정의 장안사 신도들 덕분에 복지관 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은 절로 밥맛이 난다. 사진은 9월 7일 봉사 모습.

성남 한솔복지관 장안사 신도회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성남 한솔종합복지관(관장 성화) 식당에는 '웃는 얼굴'들이 있다. 무심코 식당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도 변하는 '미소'는 지역 어르신들의 얼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들, 식당 조리대에 서서 어르신들에게 맛난 음식을 해드려주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장안사 신도회(회장 백준환) 보살들이다. 9월 7일은 장안사 신도회의 봉사 날. 아침부터 복지관은 밝은 웃음으로 물든다. 보살들이 이날 준비한 음식은 꼬리곰탕이다. 무와 쇠고기를 맛있게 양념하는 보살들의 손이 아무지다. 이미 4년여 동안 복지관의 장장을 도맡아 했고, 행사만 있으면 자원봉사자가 되길 꺼려하지 않아서다. 복지관의 대소사를 살뜰하게 살피는 것으로 유명한 장안사 신도회 백준환(61) 회장은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다고 한다.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어르신들을 대할 때면 부모님을 뵈는 것 같아 가슴이 설렘 정도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감사함을 담고 있

는 백 회장은 "봉사는 그저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장안사 신도들을 이끌어간다. 그 마음이 공유됐기 때문인지 장안사 봉사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한다. 서로 업무 분담을 한 것도 아닌 건만 알아서 척척이다. "서로 힘든 일 하겠다" 하니 얼마나 화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장안사 신도회가 자랑하는 것은 '봉사' 하러 온 사람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맘을 함부로 하는 법도 없고, 힘든 일을 기피하지도 않는다. 최은숙(48)보살은 "건전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목을 다지다 보니 즐겁고 호호도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한다. 장안사 신도들은 이렇게 '즐거운 봉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한다. 자신들만 봉사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 "봉사는 꾸준히 해야 알아야. 나름대로 이용자들의 애착도 느껴야죠. 그 감동을 느낄 때까지 일하면, 기분 좋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글·사진/성남=김강진 기자

무료급식소 물품 필요해요

한솔복지관 인근에서는 현재 무료급식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경로식당에 필요한 그릇, 테이블,

책장 등의 물품이 없다는 것. 장안사 신도들은 "어르신들이 넓은 곳에서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031)716-4215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이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해서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 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중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중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세요.

청명한 가을 하늘, 여시아문이 秋天 하는 도서와 함께!!

<p>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p> <p>신화선 주홍을 위한 선한장 초경 대법회</p> <p>禪 너는 누구냐</p> <p>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공부를 해서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는 주 홍 장은 맑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수심 반 수행 공부를 한 중들에게 친절한 지혜를 주게 선한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되어 나왔습니다.</p> <p>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역음</p>	<p>대하 로그 다큐멘터리 신앙오천축국전</p> <p>혜초따라 5만리</p> <p>무려 15년 동안 7개 걸려 10여 개국을 떠돌고 머물며 머물며 머물며 완성한 신앙오천축국전</p> <p>신국판 302쪽 · 하권 296쪽 값 각권 18,000원 / 김규현 지음</p>	<p>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p> <p>선 어삼백칙</p> <p>지금 내게 질문하는 지, 이것이 바로 나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 나 부족함이 없다.</p> <p>신국판 / 420쪽 / 값 10,000원 차차서 譯</p>	<p>있어져 가는 폐사지 그 소중함을 되찾는 이야기</p> <p>이허진 가람탐방</p> <p>폐사지 보존 방안 상경문화재단이 새롭게 마련한 '책으로 사민 정지현이 폐사지를 직접 답사하여 책으로 엮었다.</p> <p>B6 변형 / 356쪽 / 값 23,000원 장지현 지</p>	<p>'선방'에서 벌어지는 사건</p> <p>선방일기</p> <p>'지' 라는 시골에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p> <p>B6 / 136쪽 / 값 5,000원 지허 스님 지음</p>	<p>'화 잘 내는 사람'은 최고의 수처다!</p> <p>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p> <p>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선한 '보리도사제(唐譯藏大師)'를 초월 스님이 직접 해설한 법문 책.</p> <p>B6 변형 / 178쪽 / 값 4,500원 초월 스님 편역</p>
<p>집착은 마음의 적!</p> <p>감산자전</p> <p>마음은 본래 맑은 곳과 같으나, 눈과 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때부터 그 감각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인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다.</p> <p>248쪽 / 값 8,000원 지허 지음 / 대성 옮김</p>	<p>참선자의 필수도서</p> <p>참선요지(參禪要旨)</p> <p>깨달음을 향한 과정 중 안일과 내재 그리고 마음과 지각, 수행자의 모습을 뜻도록 하는 필수 지침서.</p> <p>B6 변형 / 278쪽 / 값 5,500원 허운화상 법어 / 대성 옮김</p>	<p>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 이야기</p> <p>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p> <p>2,600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유효한 가르침으로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붓다의 가르침</p> <p>신국판 / 344쪽 / 값 9,000원 안영규 지음</p>	<p>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p> <p>항금빛 봉황이</p> <p>버섯들이 일과간 뒤 어둠은 조약돌이 드러나듯 깨달음 정령 선이(禪靈)들은 영원한 문자를 찾아볼 수 없다. 희에 담긴 실재의 묘미를 오직(悟)해 모두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p> <p>— 불교사 승가대학장 역년 스님</p> <p>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수철 지음</p>	<p>조계종 수행의 길</p> <p>간 화 선</p> <p>이론보다 실천, 문보다 법을 위주로 하여 선의 본질을 제시한다.</p> <p>A5 / 436쪽 / 값 15,000원 불학연구소</p>	<p>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p> <p>21세기 붓다의 메시지</p> <p>문수의 법왕자로서 무처남의 법을 전하는 21세기 선공공덕이 많은 선불자 선어연들은 이 책을 의심하지 말고 마음껏 읽어라</p> <p>A5 / 300쪽 / 값 15,000원 자재만연</p>

www.yosiamun.com
이메일 :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 (02)2004-8220 팩스주문 : (02)737-0696